



박기태 '변화'



이호동 '낯선 만남'

고정된 관점에서 벗어난 새로움

현대조형미술 '존재의 고리'

내달 28일까지 소암미술관

박기태·이호동·최희원 참여

나무, 철 등 쓸모없어진 폐품을 바라보는 이의 관점을 어느 곳에 두느냐에 따라 사물은 새로워진다.

이같은 관점에서 바라본, 사물의 본질에서 벗어난 색다른 전시가 광주 소암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현대 조형미술 기획전시 '존재의 고리'다. 다음달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광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기태·이호동·최희원 작가 3인이 참여했다.

박기태 작가는 조형 작업을 할 때 주로 철을

이용한 용접기법을 선호한다. 인간의 나약하고 외로운 존재의 심리를 전달하기 위한 박 작가의 방식이다.

박 작가의 작품에서는 소의 형상 조형물과 사람의 길게 늘어뜨려 놓은 조형물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소를 통해 불안정한 자신의 내면과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자아성찰 등을 표현한 작품이다. 육망스러운 인간의 마음속 갈등과 빼만 남은 듯한 소의 형태의 속에서는 잡다한 욕망을 비추는 인간의 내면이 느껴진다.

네모난 철판을 이어 만들어 소를 형상화한 작품 '변화'는 미술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이다. 작품을 찬찬히 살펴다 보면 어딘가 낯이 스는 듯한 느낌이 든다.

몸통은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소의 얼굴을 바라다보면 어딘가 응시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작가는 질서 세계에서 무질서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식적인 형상을 표현한 것이라 설명한다.

쪼그려 앉아 무언가 생각한 듯한 '독방'은 작품 속 인물이 하나의 틀에 갇혀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작가의 고뇌가 느껴진다.

이호동 작가는 쓸모없는 사물을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시켰다. 이 작가에게 쓸모없는 폐품은 오브제 중 하나다. 재창조 작업을 통해 본연의 기능은 소멸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무심코 지나쳤던 버려진 사물들을 결합해 놀잇감을 만들고 그 놀잇감을 통해 아이와 어른이 만나는 낯선 만남을 시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실제 전시된 이 작가 작품 소재를 부분 부분 살펴다 보면 익숙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낯설

다. 마치 조류 조형물로 보이는 '낯선 만남'을 천천히 보다 보면 경운기 클러치는 얼굴과 부리를 표현한 듯하다. 몸통 부분에서는 테니스체가 보인다.

쓰다 남은 계란판과 탁구공은 '쪼끼오-목'이라는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최희원 작가는 판화작업을 통해 파도의 움직임 추상적인 형태로 풀어냈다. 파도의 물결 하나하나가 나무의 조각으로 살려 색다른 느낌을 줬다. 나무를 치밀하게 도려내기보다는 원래 형상에 맞춰 질감을 담백하게 담았다. 조각을 바라보다 보면 용접을 흘려내려 마치 물방울이 맺힌 듯한 느낌도 들었다.

양호열 큐레이터는 "세 작가의 작품 모두 그들의 고유한 창작방식과 조형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형상으로 시각화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를 통해 각자 개개인의 개성을 엿보는 것도 전시의 관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전시 감상을 통해 코로나19로 잠시 일상을 멈췄던 시민들이 새로운 예술가들과의 만남과 그들의 열정을 느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문화 브리핑

◇GAC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문명의 교차로, 단달루시아' =25일 오전 11시 광주공연마루

◇김미영 개인전 'comfort-위로' =25일-8월 5일 자미 갤러리(오전 9시-오후 6시 주말·공휴일 휴관)

◇제13회 금호 주니어콘서트 소프라노 유지수 독창회=26일 오후 7시30분 금호아트홀

◇비엔날레기념전 '관진구 탄생 100주년 기념전' =26일-10월 30일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제1-2전시실(오전 10시-오후 6시 월 휴관)

◇ACC브런치 콘서트 '하윤주 소리의 정원' =27일 오전 11시 ACC예술극장 2

◇'문화서구예술인협회' 전=28일-8월 3일 금호 갤러리(오전 10시-오후 7시)

◇연극 '죽어야 사는 남자' =28일-8월 28일 (화-금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오후 6시 8월 16일 휴관)

◇어린이직업체험 특별전시 '키자니아 Go 광주' =29일-8월 28일 ACC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30분 월 휴관)

◇꽃장(플리마켓)=7월 29일-7월 30일 (금·토 오전 11-오후 6시)

◇100회 광음악악회=30일 오후 7시 30분 노대동 불빛극단 공연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인가'

명지대 이태호 교수 강연



이태호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2022 미술관 아카데미 강좌:즐거움 미술관 활용법'의 네 번째 강의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인가'를 개최한다.

강연을 맡게 된 명지대학교 이태호 석좌교

수는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인가'라는 주제로 인간 삶과 정신의 최고 높은 단계인 미술작품에 대한 수집 욕구를 비롯한 개인 자산적 가치, 감상의 유희, 문화유산과 민족자산의 공공재 등으로써 미술작품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한국미술사의 명작을 소개하며 좋은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에 대한 설명도 들려준다. 이와 더불어 미술사가이면서, 미술사와 비평가로서 작품 진위 감정을 했던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미술시장을 읽고 작품을 고르는 방법 등도 알려준다. /이나라 기자

광주과학관 '띠리 띠리 컴퓨터 세상' 기획전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12월 말까지 어린이과학관 1층 도란도란 쉼터에서 '띠리 띠리 컴퓨터 세상' 기획전시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서울상상나라에서 기획했으며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코딩의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부품들을 메인보드에 끼워보며 컴퓨터의 원리를 알아보는 '서로서로 연결해요'와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진법을 익힐 수

있는 '0과 1로 만드는 내 나이' 등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이진법, 명령어, 순서도 등을 쉽게 이해해볼 수 있다.

전태호 관장직무대리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컴퓨터의 기본원리를 탐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립광주과학관은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인 디지털 기초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콘텐츠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12월 말까지 어린이과학관 1층 도란도란 쉼터에서 '띠리 띠리 컴퓨터 세상' 기획전시를 운영한다.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